

올 37개 의대서 2927명 선발

학종 889명 > 학생부교과 715명 > 논술 193명

작년 면접서 '인적성 문항' 비중 ↑ 연대, 올해부터 논술로 선발 안해 모든 전형서 수능최저기준 미적용 중앙대, 100% 서류전형으로 전환

자연계열 최상위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의학계열 올해 대입 전형이 크게 바뀔에 따라 대학별 전형요강을 사전에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1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대입에서는 37개 의대가 2927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이 10명 중 6명 이상인 1834명(62.7%)을, 정시 모집으로는 1093명(37.3%)을 뽑는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889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 교과전형(715명), 논술전형(193명), 특기자전형(37명) 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인원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전형별 인원과 전형방법이 달라진 대학이 많아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계획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전략을 짜야 한다.

연세대(서울) 의예과는 올해부터 논술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전형의 모집이 45명으로 32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부산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일반)전형으로 모집했던 10명 모두를 교과전형에 추가해 모집한다. 동아대는 수시에서 교과전형으로 모집한 지역균형인재전형에서 10명을 줄여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과 지역균형인재 전형에 각각 5명씩 늘려 뽑는다. 가톨릭대의 경우 올해 의학논술을



대입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외한 수리논술만 출제하고, 한양대는 인문논술을 추가해 출제하는 등 논술 출제 유형을 고려한 전략도 필요하다. 경북대는 교과전형인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받는다. 고려대는 학교추천 전형에서 2단계 면접 100%로 선발했으나, 올해 1단계 교과 성적을 50% 반영하면서 교과 영향력이 커졌다. 연세대(서울)은 종합전형의 2단계 평가에서 면접 비중을 40%로 늘려 면접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다. 중앙대의 경우는 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전형 모두 면접을 없애고 서류 100% 전형으로 변경했다. 체출서류인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학업역량과 잠재력 등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 수시모집 의예과 전형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서울대 일반전형, 중앙대 다빈치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등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도 있다. 연세대(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종합전형의 서류와 면접 영향력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서류나 면접에 약할 경우 수능최저 기준을 강화한 건양대, 동국대, 제주대, 한림대 등이 유리할 수 있고, 대학별고사나 서류에 자신있다면 수능최저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대학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의예과 수시 모집의 경우 대학마다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의 차이가 크다"며 "선호 대학 위주로 대비하려다 보면 여러 전형을 모두 대비해야 해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의 모의평가와 학생부를 토대로 유리한 조합의 대학을 그룹 지어 놓고 그 대학들 위주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신보, 16년 만에 상반기 신입직원 공채

일반전형 55명·특별전형 15명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을 공개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일반전형 55명, 특별전형 15명으로 총 70명을 채용한다. 신보가 상반기에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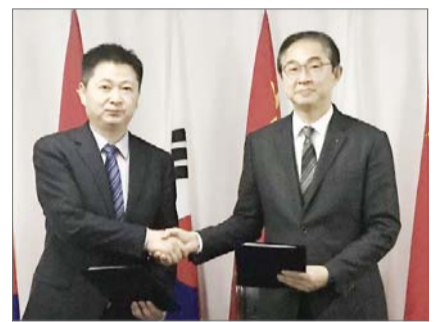
일반전형 55명 중 20명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구분해서 채용할 계획이

다. 지난해 도입한 '이전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통해 일반전형 중 21%를 대구·경북 지역인재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전형에서는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술(ICT) 5명, 데이터 전문 2명, 리스크관리 4명, 기술평가 및 투자심사 4명 등 총 1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7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희주 기자 hj89@

韓-中 군당국, 중국군 유해 10구 입관

인천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 DMZ 등서 발굴된 6·25 전사자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오른쪽)과 중국 리광 선양기념사 부사장이 지난 1월 23일 중국 베이징 퇴역군인사무부에서 제6차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인천시에 마련된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중국군 유해 10구에 대한 입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관식을 통해 중국측에 반환되는 유해 10구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발굴된 중국군 6·25 전사자 유해다.

한국측에서는 이경국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이 중국측에서는 두농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이 입관식을 주관했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 등도 참석했다.

앞서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달 5일 '19-1차 국제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유해 15구 가운데 완전유해(1구)를 포함해 10구를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11월 발굴한 유해를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중국군

으로 판정된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관식을 마친 중국군 유해는 오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측에 인도되며,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첸펑(錢鋒)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에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면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99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취업 필수 스펙된 '인턴'... 상반기 진행 기업은?

GS칼텍스 일반, 한화큐셀 채용연계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블라인드 채용

최근 기업 채용 평가에서 직무역량 중 시 경향이 커지면서 인턴이 취업 필수 스펙으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인턴 채용이 진행 중이다.

GS칼텍스는 상반기 일반직 인턴 모집에 나선다. 분야는 엔지니어(공정), 엔지니어(기계/장치/전기), 소매영업,

물류, 경영지원(CSR) 등으로 각 직무별 자격조건과 근무지가 상이하다.

한화큐셀(주)는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기술·엔지니어 ▲연구개발 ▲영업 ▲경영지원 직군이다. 전형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으로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은 행정, 연구 기술 직군에서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의 신상, 학력,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직무 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면 안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무, 체육, 전산, 기술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만 15세~34세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턴 근무 경험이 없으면 학력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서류, 면접(직무수행능력 및 종합인성평가)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지원서 접수는 3일까지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4학년 김호중씨 SCI급저널에 논문 게재

한성대학교는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김호중씨(사진)가 기계전자공학부 전자트랙 정성훈 교수의 지도를 받아 낸 논문 'SOGN: 자기조직지도를 이용한 새로운 생성망'이 SCI급 저널인 영국 공학기술학회(IEE T)의 일렉트로닉스 레터스에 게재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 김현경 코스트코 코리아 부사장 초청 특강

상명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캠퍼스에서 김현경 코스트코 코리아 부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특강은 사회 각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성공학 특강'의 일환으로, 코스트코의 성공을 주제로 코스트코의 역사와 현재, 코스트코의 동력과 문화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 부사장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 코스트코 코리아와 유통업 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는 지난 29일 김현경 코스트코 코리아 부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상명대학교

특강에는 서울캠퍼스 재학생 160여명과 화상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2캠퍼스 재학생 50여명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해병대 '70주년'... "새로운 70년 향하여"

슬로건 선포·조형물 제작 등 진행

해병대가 1일 창설 70주년을 맞아 결의를 다지고 강인한 해병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 사령부 분청 광장에서 창설 70주년 기념 슬로건 선포 및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창설 70주년 공식 엠블럼은 숫자 70을 독수리의 머리와 바다위의 태양으로 형상화해, 해병대의 진취적 기상과 정신을 표현했다. 70주년 공식슬로건 '호국충성 해병대, 새로운 70년을 향하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역사를 새로운 70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령부에서 창설 70주년 상징 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조형물은 한국전쟁(6·25) 당시 해병대가 가장 먼저 서울 수복의 승전보를 올렸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담아 만들었다.

이 조형물은 해병대사령부의 국기계양대로 활용해 해병대 장병들이 매일 값진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새로운 결



해병대는 1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했다. /해병대

의를 다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진군 해병대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감격적인 순간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켜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오늘의 상징 조형물 제막은 선배 해병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국가가 부여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언제나 완수하겠다는 현역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엠블럼과 슬로건을 해병대 공문서와 간행물, 홍보물 등에 활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창설 70주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